

##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 봉사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은 호                  박 준 성                  정 태 연<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를 확인하고, 성격강점에 기인하는 봉사행동이 이 과정에서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인남녀 1,405명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에 대해 세대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이르는 효과의 세대별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각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뢰, 충만한 삶, 삶의 의미를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세대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인초기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중년기 이후 세대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봉사행동이 완전매개 하였지만 성인초기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봉사행동이 부분매개 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기 이후에서는 성인초기와 달리 성격강점 그 자체만으로 충만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봉사행동이라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서 성인들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과 봉사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 성인초기, 중년기.

---

<sup>†</sup>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 [tjung@cau.ac.kr](mailto:tjung@cau.ac.kr)

사람은 성별, 세대, 시대 등을 막론하고 누구나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충만한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자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고 심리적 건강, 삶의 가치를 찾게 해주며 현실과 이상을 연결시켜주는 삶이다(김정규, 2008; 박준성, 정태연, 2012; Baumeister, 1991; Chamberlain & Zika, 1988; Frankl, 1984; Hermans, 1998; Lucas, 1998).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성격강점이 필요하다. 삶 속에서의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을 행복의 하향적 관점에서 보면, 성격강점이 삶의 행복과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권석만, 2008; Ashton & Lee, 2005; Collins, 2001; Exline & Geyer, 2004; Exline & Zell, 2008; LaBouff, Rowatt, Johnson, Tsang, & McCullough, 2012; Owen, 2009; Powers, Nam, Rowatt, & Hill, 2007). 이러한 성격강점은 친사회적 행동과 가치추구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타인에 대한 속임수나 기만행동의 회피 행동과도 연결된다(Ashton & Lee, 2008; Peters, Rowatt, & Johnson, 2011). 청소년들의 성격강점은 생활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정서를 완화하고 행복감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미숙, 2017;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4; 조경화, 고재홍, 2012). 삶 속의 성격강점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한다. 특히, 성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 성격강점은 그들의 삶을 주체적이고 충만하게 추구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강점은 개인적인 삶에서 높은 자기조절을 보이고 관계적으로 겸손한 태도로 보이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신뢰를 드러낼 수 있다. 가령,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잘 조절하면 심리적 안정

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기조절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ngney, 2009). 겸손은 대인관계에서 관용적이고 학업수행이나 업무수행의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aBouff et al., 2012; Owen, 2009).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신뢰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와 함께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Berkowitz & Lutterman, 1968).

### 성격강점

일상의 삶속에서 성격강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를 크게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지향하는 목표도달을 위해 사고와 감정, 충동,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권석만, 2008)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적 차원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 동기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성격적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자기조절감을 보이는 사람은 대체로 겸손하다(Weiss & Knight, 1980).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나 성과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다. Mischel, Shoda와 Peake(1988)는 4세 때의 만족지연의 정도가 10년 후 성공적인 학업수행과 대인관계 형성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자기조절 능력은 학생들의 성적을 예측하는 강력한 성격특질이기도 하다. 학생의 자기조절 능력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Wolfe & Johnson, 1995). 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성취나 사회적 성과에 필수적이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자기조절 능력은 발달적으로 중·노년기의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박준성, 정태연, 2012). 그래서 중·노년기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은 긍정적인 여러 성격변인인 감사, 사랑, 낙관성, 활기, 끈기 등과 상관이 있어 중년기 이후의 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다(윤성민, 신희천, 2012).

성격강점에서 관계적 측면으로의 겸손(humility)은 자신의 장점이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절제된 평가를 내리는 태도이다. 그렇기에 겸손에는 자신에 대한 절제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태도를 포함한다(권석만, 2008). 경쟁적 구도를 보이는 우리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이는 자기존중감이 겸손보다는 장려되는 태도로 여겨지며 높은 자기존중감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근거로 자기 가치감을 갖기 때문에 긍정적 행동들을 유발하며 우리사회에도 필요한 개인의 성격강점이다(Brown, 1993; Campbell, 1981; Exline et al., 2004). 겸손은 감사행동, 협력행동, 이타적 행동, 도움행동 등과 같은 여러 긍정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Hilbig & Zettler, 2009; LaBouff et al., 2012; Rowatt, Powers, Targhetta, Comer, Kennedy, & LaBouff, 2006; Tangney, 2002). 그래서 겸손은 현재 경쟁구도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성격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강점의 사회적 측면으로의 사회에 대한 신뢰(trust)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

해 신뢰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부응하고 충성과 헌신하는 성격강점이다(권석만, 2008). 사회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책임감, 시민정신 등을 동반한다. 특히, 사회적 신뢰는 강한 의무감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하고 동료에게 충실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만, 2008). 더 나아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 사회운동, 환경운동 등과 같은 가치추구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보인다(김상민, 2005; 이성록, 2001; Staub, 1978). 이렇듯, 성격강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자기조절, 겸손, 신뢰와 같은 성격강점이 성인기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보여준다.

## 봉사행동

긍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봉사행동(volunteering)은 충만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중수(2011)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타의에 의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보다 높은 행복을 보였다(도중수, 2011).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봉사행동 이전에는 대부분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봉사행동 이후에는 성격강점으로 변하는 결과를 보였다(김정배, 2002). 아울러 이타적 동기에서 참여할 때 이기적 동기에서 참여할 때보다 높은 긍정적 태도변화를 보였고, 직접적 접촉의 봉사행동이

간접적 봉사행동에 비해 큰 성격강점 변화를 보였다. 즉, 봉사행동은 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행복감과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만한 삶을 추구하게 한다.

봉사행동은 가치추구적 활동이기에 반자기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서지영, 정영숙, 2016). 반자기적 행동은 이타적 행동의 한 형태로써 내면의 자기에 성향을 배제하고 조절하는 행동이다(권석만, 2008). 반자기적 행동은 자기애적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행동이므로 자기애적 행동을 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자기애적 행동은 경쟁성(Watson, Morris, & Moller, 1997), 지배성(Emmons, 1984), 공격성(Hart & Joubert, 1996), 분노성(McCann & Bidggo, 1989)이 강한 성향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우월성이 도전받을 때나 자존감 위협 상황에 직면할 때 과민반응을 보이고, 무시당서를 지각할 때 분노반응을 보인다(Bushman & Baumeister, 1998; Rhodewalt & Mort, 1998). 이러한 자기에 성향은 용서행동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서경현, 양승애, 2010; Sandage, Worthing, Hight, & Berry, 2000). 그렇기 때문에 반자기적 행동은 지나친 경쟁적, 지배적, 공격적, 분노적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모습을 추구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게 한다.

봉사행동의 하위변인인 이타행동은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며 보살피주는 행동이다(권석만, 2008). 봉사행동은 친절성이나 이타주의에 의해 촉진되고 표현된다(Omoto & Snyder, 1995). 그래서 이타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다(Bierhoff, Klein, & Kramp, 1991). 이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이고 낮은 자기애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봉사행동에 적극적 성향을 보인다(Axelrod, Widiger, Trull, & Corbitt, 1997).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이타주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고, 또래 수용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지연, 이항심, 2007). 그래서 이타행동은 자신의 이익이나 규범이나 명예를 위한 행동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다 쉽게 삶의 의미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봉사행동의 한 방법인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돕는 행동이다(박준성, 정태연, 2011). 봉사활동에는 공격행동과 반대로 타인에 대한 연민, 동정심, 구제행동, 이타행동 등 인간행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치추구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보다는 오히려 희생이 동반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연구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 행복감을 느낀다고 제안한다(Weiss, 1973).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인식하기 때문이다(권석만, 2008).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원봉사활동 후 봉사자들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권석만, 2008; Newman, Vasudey, & Onawola, 1985; Wheeler, Gorey, & Greenblatt, 1998). 따라서 이러한 봉사행동은 가치추구적이기에 행복과 삶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하다.

## 충만한 삶

충만한 삶(full life)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만족,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적인 삶이다(김정규, 2008; Baumeister, 1991; Frankl, 1984; Seligman, 2002). 충만한 삶은 개인적 충만함과 관계 및 사회적 충만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충만한 삶은 개인을 확장하고 관계 및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며 충만하게 이끈다. 그러나 충만한 삶으로의 과정은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충만한 삶 추구방식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다(이훈구, 1997; 전경숙, 정태연, 2009; Myers & Diener, 1995). 즉,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는 자신의 성장배경과 처해진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권석만,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만한 삶을 행복과 삶의 의미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행복(happiness)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이다. 개인의 행복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인차가 존재한다(박병선, 배성우, 2012; 이훈구, 1997; Myers & Diener, 1995; Veehoven, 1994). 결국 행복은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요인으로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박소연, 이홍직, 2013), 관계적 측면, 자기성취 측면, 개인심리적 측면, 신체적 측면, 신체적 측면, 물질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 6개의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신지연, 정태연, 전경숙, 2007). 김명소 등(2003)은 행복을 직접 개발한 16개의 하위변인으로 설명하였다(김명소, 김혜원, 차명호, 임지영, 한영석, 2003).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는 삶의 목표지향

성이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다(Ryff & Singer, 1998). 삶의 의미는 삶의 존재론적 중요성이기도 하고(Crumbaugh & Maholick, 1964), 한 사람이 실존에서 의미, 질서, 일관성을 형성하여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Wong, 1987)이기도 하다. 삶의 의미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삶의 가치를 찾고 고자하는 노력이다(박준성, 정태연, 2012).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다. 이러한 삶의 의미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 및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삶의 의미는 외부의 위협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Battista & Almond, 1993; Janoff-Bulman & McPherson, 1997; Reker & Wong, 1988; Steger, 2009). 삶의 목적의식과 방향감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 요건이다(Ryff et al., 1998). 따라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Chamberlain et al., 1988).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는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뿐 아니라, 개인이 삶에서 개인적으로, 관계 및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거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성의 실체이다(박선영, 권석만, 2012).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행복과 삶의 의미는 경제적 상황 개선이나 권력적 추구하고 같은 요인보다는 개인의 태도나 인식변화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의 의미에 중요하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Andrews & Withey, 1976; Davis, McKone, Dennett, O'Conner, O'Kearney, & Palermo, 2011; LaBouff et al., 2012; Owens, 2009).

## 연구문제

지금까지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성격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격강점은 봉사행동을 증진시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즉, 성인들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로에서 성격강점에서 기인하는 봉사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성격강점은 다양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유발하고(Exline et al., 2004) 봉사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Berkowitz & Lutterman, 1968; Buhl, 2001; Flanagan, Gill, & Galler, 2005; Jennings, 1991; Leary & Baumeister, 2000). 또한 가치추구적인 봉사행동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Batson et al., 1986) 성격강점은 봉사행동과 긍정적인 삶의 방식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격강점에서 기인한 봉사행동도 충만한 삶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경로를 확인하고, 이러한 경로에서 성격강점에서 기인된 봉사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되, 이러한 봉사행동의 매개효과에 성인초기와 중년기 이후 세대 간의 차이를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세대에 따라 이러한 봉사행동이 성인초기와 중년기 이후에 차이를 보인다면 충만한 삶의 인식에 봉사행동의 역할이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에 따라 봉사행동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면 충만한 삶에 있어서 봉사행동의 의미와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에 세대 간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볼 것이다. 셋째,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경로에서 봉사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볼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연구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40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참가자를 발달단계별로 성인초기와 중년기 이후로 구분하였다.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814명은 성인초기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3세( $SD = 4.00$ )였다. 만 40세에서 만 78세의 참가자 591명은 중년기 이후 세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51세( $SD = 5.54$ )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성인들의 성격강점과 봉사행동, 충만한 삶에 대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격강점에는 자기조절, 겸손, 신뢰의 세 하위요인을 측정하였다. 봉사행동은 반자기적 행동, 이타행동, 자원봉사활동을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충만한 삶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성격강점의 요인으로 자기조절은 권석만

(200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조절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1점: 전혀 아니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69였다. 겸손은 권석만(200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보고식 Likert 방식의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73이었다. 신뢰는 박준성 등(2009)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64였다.

봉사행동은 우에라(1996)와 김성수(2007)가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행동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중심적 행동(9문항), 봉사행동(7문항), 이타행동(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73이었다. 이 요인은 자기보고식 Likert 방식의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충만한 삶의 하위요인으로서 행복은 김명소 등(2003)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8개의 문항과 1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안정,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종교·이타심·자녀의 바른성장·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배우자(이성)와의 사랑·대인관계·외모·긍정적인생관·건강으로 각각 3문항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

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94였다. Likert 방식의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의미는 Wong(1998)이 개발하고 박준성과 정태연(2012)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7문항과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자기성취(16문항), 대인관계(9문항), 종교(9문항), 자기초월(8문항), 자기수용(6문항), 친밀성(5문항), 공정성(4문항)이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97이었다. 자기보고식 Likert 방식의 7점척도(1점: 전혀 아니다 에서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통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들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고, 이후 구조방정식 AMO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모형을 검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 결 과

세대를 통합한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의 차이 검증

세대(성인초기, 중년기 이후)를 구분하여 변인 간(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 영향력 차이를  $t$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표 1 참고).

표 1. 세대에 따른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의 차이검증

종속변인	집단	전체	성인초기 (n = 827)	중년기 이후 (n = 588)	t
		M (SD)	M (SD)	M (SD)	
성격강점		4.37 (.66)	4.24 (.64)	4.54 (.65)	5.51***
자기조절		4.33 (.85)	4.17 (.85)	4.56 (.80)	8.87***
겸손		4.42 (.86)	4.25 (.84)	4.66 (.83)	9.23***
신뢰		4.35 (.81)	4.32 (.81)	4.39 (.81)	1.75
봉사행동		4.54 (.61)	4.46 (.58)	4.65 (.64)	5.63***
반자기적 행동		4.66 (.93)	4.55 (.95)	4.80 (.88)	5.04***
이타행동		4.02 (.85)	3.98 (.88)	4.08 (.80)	2.11*
자원봉사활동		4.93 (.89)	4.85 (.86)	5.05 (.92)	4.29***
충만한 삶		4.49 (.76)	4.67 (.76)	4.52 (.75)	1.23
행복		4.34 (.73)	4.30 (.74)	4.40 (.72)	2.81**
삶의 의미		4.64 (.85)	4.64 (.85)	4.63 (.85)	.22

\*  $p < .05$ , \*\*  $p < .01$ , \*\*\*  $p < .001$

첫째, 성격강점 변인( $t = 5.51, p < .001$ )과 하위요인 자기조절( $t = 8.87, p < .001$ )과 겸손( $t = 9.23,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봉사행동 변인( $t = 5.64, p < .001$ )과 하위요인 반자기적 행동( $t = 5.04, p < .001$ ), 봉사행동( $t = 4.29, p < .001$ )과 이타행동( $t = 2.11,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충만한 삶에서는 하위요인 행복( $t = 2.81,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미하였지만 신뢰와 충만한 삶, 삶의 의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격강점과 봉사행동, 충만한 삶의 모형검증

성격강점과 봉사행동, 충만한 삶의 변인 간 상관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격강점과 봉사행

동 그리고 충만한 삶 간에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표 2). 가장 높은 상관은 성격강점과 충만한 삶 간의 상관이었다( $r = .60, p < .001$ ).

성인초기와 중년기 이후 세대를 통합한 전체모형에서 성격강점이 봉사행동과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3과 그림 1과 같다. 성격강점이 봉사행동으로 가는 경로( $\beta = .79$ ,

표 2.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 척도 간의 상관행렬

	1	2	3
1. 성격강점	-		
2. 봉사행동	.46***	-	
3. 충만한 삶	.60***	.53***	-

\*\*\*  $p < .001$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성격강점의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전체)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성격강점	→ 봉사행동	.79	17.55***
봉사행동성격강점	→ 충만한 삶	.70	6.92***
	→ 충만한 삶	.19	2.12*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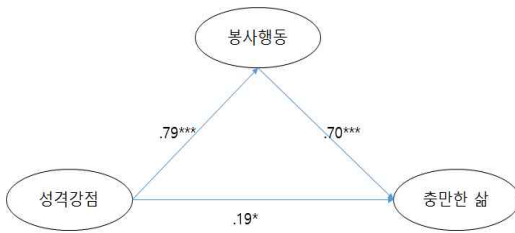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전체)

$p < .001$ ), 봉사행동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경로( $\beta = .70, p < .001$ ),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경로( $\beta = .19, p < .001$ ) 모두 통계적 유의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X^2/df$ 가 보통 3이하이면 양호한 수준(김계수, 2004),  $TLI, GFI, CFI$  등은 .70을 초과하면 수용가능하며(박동현, 배성규, 2003), .90에 접근하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문수백, 2009; 양병화, 1998).  $RMSEA$  적합도는 .05미만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인정한다(성태제, 2007).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4에서 보듯이  $X^2/df = 2.55, RMSEA = .03, TLI = .99, GFI = .99, CFI = .99$ 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본 모형은 충만한 삶에 대한 변량의 73%를 설명하여 양호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SMC = .73$ ). 구조방정식에서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의 양호한 수치는 .20 ~ .99까지이다(문수백, 2009;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세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성인초기에서 성격강점이 봉사행동과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그림 2와 같다. 성인초기에서 성격강점이 봉사행동으로 가는 경로( $\beta =$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성격강점의 모형 검증

$X^2$	$X^2/df$	$p$	$RMSEA$	$TLI$	$GFI$	$CFI$
22.93	2.55	$p < .05$	.03	.99	.99	.99

표 5. 연구모형에 대한 성격강점의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성인초기)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성격강점	→ 봉사행동	.68	10.41***
봉사행동성격강점	→ 충만한 삶	.54	5.86***
	→ 충만한 삶	.35	4.5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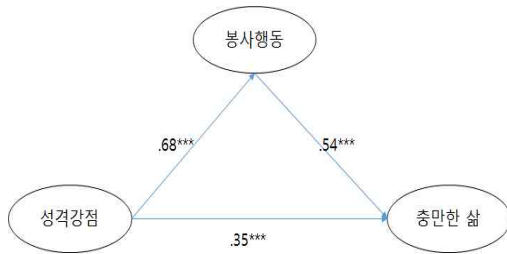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성인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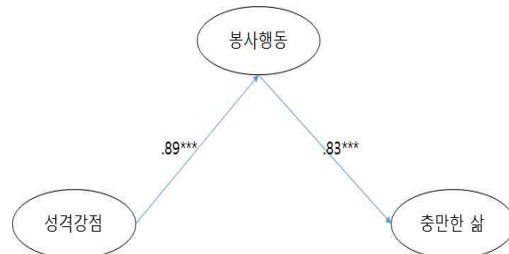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중년기이후 세대)

.68,  $p < .001$ ), 봉사행동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경로( $\beta = .54, p < .001$ ), 성격강점에서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경로( $\beta = .35, p < .001$ ) 모두 통계적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6에서 보듯이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는  $X^2/df = 2.61$ ,  $RMSEA = .04$ ,  $TLI = .99$ ,  $GFI = .99$ ,  $CFI = .99$ 의 높은 적합도로 본 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모형은 충만한 삶에 대한 변량의 66%를 설명하여 양호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SMC =$

.66)

중년기 이후에서 성격강점이 봉사행동과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그림 3과 같다. 중년기 이후 세대에서 성격강점이 봉사행동으로 가는 경로( $\beta = .89, p < .001$ ), 봉사행동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경로( $\beta = .83,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8에서 보듯

표 6. 연구모형에 대한 성격강점의 모형 검증(성인초기)

$X^2$	$X^2/df$	$p$	$RMSEA$	$TLI$	$GFI$	$CFI$
28.69	2.61	$p < .05$	.04	.99	.99	.99

표 7. 연구모형에 대한 성격강점의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중년기 이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성격강점 → 봉사행동	.89	14.17***
봉사행동 → 충만한 삶	.83	15.59***

\*\*\*  $p < .001$

표 8. 연구모형에 대한 성격강점의 모형 검증(중년기 이후)

$X^2$	$X^2/df$	$p$	$RMSEA$	$TLI$	$GFI$	$CFI$
30.42	2.34	$p < .05$	.05	.98	.99	.99

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X^2/df = 2.34$ ,  $RMSEA = .05$ ,  $TLI = .98$ ,  $GFI = .99$ ,  $CFI = .99$ 의 높은 적합도로 본 모형이 검증되었다. 본 모형은 충만한 삶에 대한 변량의 69%를 설명하여 양호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 $SMC = .69$ ).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성인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봉사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의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봉사행동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세대 간을 구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그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 겸손, 봉사행동, 반자기적 행동, 이타행동, 자원봉사활동, 행복에서 성인 초기와 중년기 이후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신뢰, 충만한 삶, 삶의 의미에서는 세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성인들 사이에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박준성, 정태연, 2012; 장휘숙, 2013; 정옥분, 2014; Berk, 2010).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히, 중년기 이후의 성인들이 성인초기의 성인들보다 성숙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뢰, 충만한 삶, 삶의 의미에서는 세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신뢰, 충만한 삶, 삶의 의미는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성인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발달적인 측면

보다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개인차가 변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인들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세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형에서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 유의미하였다. 성격강점은 봉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봉사행동은 충만한 삶에 세대 구분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원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성격강점은 이타적인 측면에서 봉사행동을 증진시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데 이타적인 행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김상민, 2005; 이성록, 2001; LaBouff et al., 2012). 뿐만 아니라 행복의 하향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권석만, 2008). 행복의 하향적 관점에서는 성격강점을 통해 여러 긍정적 경험을 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초기와 중년기 이후의 세대로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는 그 경로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성인초기는 성인들은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 유의미하였다. 성격강점은 봉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봉사행동은 충만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중년기 이후의 성인들은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격강점이 봉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봉사행동은 충만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다른 성인들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박준성, 정태연, 2012; 장휘숙, 2012; 정옥분, 2013). 즉, 중년기 이후의 삶은 성인초기의 삶보다 타인과의 관계적, 이타적 모습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Erickson의 발달단계에서 중년기에 제시한 발달과업인 생산성처럼 사회적 관심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자 가치추구적 삶인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서지영, 정영숙, 2016; Berk, 2010).

넷째, 봉사행동은 성인들의 충만한 삶에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권석만, 2008). 성인초기에는 부분매개, 중년기 이후에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여 봉사행동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경로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도중수, 2011; 우에라, 1996). 즉, 봉사행동은 성격강점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 충만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충만한 삶에는 행복과 삶의 의미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행동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변인이었다.

다섯째, 중년기 이후에서 성인초기보다 성격강점이 봉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고 봉사행동에서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도 높았다. 이는 성격강점이 이타적인 봉사행동을 유발하는 효과에서 중년기 이후에서 성인초기보다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자 충만한 삶에 미치는 봉사행동의 중요성에서도 중년기 이후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중년기 이후에서 성인초기보다 가치중심적인 생활을 중시함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서지영, 정영숙, 2016). 현재 우리사회는 치열한 경쟁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쟁구도는 사람들을 강박하고 이기

적이며 지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삶에서도 성격강점인 자기조절, 겸손, 신뢰는 자신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긍정적임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성격강점은 봉사행동을, 봉사행동은 충만한 삶에 영향에 긍정적임을 제시하였는데 봉사행동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측면이 아닌 이타적인 행위로 향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충만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성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격강점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군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직업군에 따라서 경쟁적 업무와 봉사적 업무를 하는 직업 간의 비교 등을 통해서 성격강점과 봉사행동 그리고 충만한 삶에 대한 이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초기의 사람들은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봉사활동의 매개효과에서 부분매개를 하였고,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경로에서 봉사활동의 매개효과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로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발달과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년기 이후에 충만한 삶에 봉사행동이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다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미숙 (2017).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8(1), 89-104.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4). 행복과 학업성취: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29-346.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김명소, 김혜원, 차명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3(2) 155-193.
- 김성수 (2007). 종교정향과 신앙성숙이 비행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규 (2008).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종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2), 481-498.
- 김정배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5, 133-173.
- 도종수 (20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복지연구*, 13(4) 21-4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동현, 배성규 (2003). 근골격계 질환에 물리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107-122.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지*, 12(2), 199-224.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연구*, 21(2), 73-84.
- 박준성, 박은미, 정태연 (2009). 종교성이 일반적 신뢰,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개신교인과 비종교인의 생활양식 비교. *종교연구*, 55, 159-190.
- 박준성, 정태연 (2011). 한국인의 종교성이 행복감, 봉사활동, 그리고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64, 109-135.
- 박준성, 정태연 (2012). 중노년기의 봉사활동이 행복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32(2), 513-524.
- 서경현, 양승애 (2010).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에와 자존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653-671.
- 서지영, 정영숙 (2016). 가치 추구, 자연과의 연결감 및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13-342.
- 신지연, 정태연, 전경숙 (2007). 대학生的 행복

- 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1), 412-413.
- 우애라 (199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정체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21-546.
- 윤성민, 신희천 (2012). 한국 수도권 중년여성들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27-49.
- 이성록 (2001).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연, 이항심 (2007). 이타주의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또래 수용도. 홀리스틱교육연구, 11(2), 15-29.
- 이훈구 (1997). 한국인의 긍정적 정서. 심리학연구, 6(2), 45-60.
- 장인협, 오정수 (1993).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13).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정옥분 (2013).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1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경화, 고재홍 (2012).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행복: 긍정적 태도의 역할. 경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30, 91-116.
- 조학래 (1993).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지윤 (200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의 사소통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New York.
- Ashton, M. C., & Lee, K. (2005). Honesty-Humility, the Big-Five,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3, 1321-1354.
- Axelrod, S. R., Widiger, T. A., Trull, T. J., & Corbitt, E. M. (1997). Relation of five-factor model antagonism facets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297-313.
- Batson, C. D., Bolen, M. H., Cross, J. A., & Neuringer-Benefiel, H. E. (1986). Where is the altruism in the altru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12-220.
- Battista, T.,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409-427.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rk, L. E. (2010).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5th*. Boston: Pearson.
- Berkowitz, L., & Lutterman, K. G. (1968). The Traditional socially responsible personality.

- Public Opinion Quarterly*, 32, 169-185.
- Bierhoff, H. W., Klein, R., & Kramp, P. (1991). Evidence of the altruistic personality from data on accident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9, 263-280.
- Billig, S. H. (2000). Research on k-12 school based service learning: The evidence builds. *Phi delta Kappan*, 658-664.
- Brown, J. D. (1993).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Feeling is belong. In J. M. Suls(Eds.), *The self in social perspective*(pp. 27-58).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Buhl, M. (2001). Involvement in the free time activities and thoughts about society-correlation and gender differences in seven nations. *The role of gender,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pril*, 19-22.
- Bushman, B. J., & Beub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 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hamberlain, K., & Zika, S. (1988). Religiosity, life meaning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 in a sample of woma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3), 411-420.
- Crumbaugh, J. C., Maholick, L. T.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08.
- Davis, J. M., McKone, E., Dennett, H., O'Connor, K. B., O'kearney, R., Palermo, R. (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recognize facial identity are associated with social anxiety. *PLoS ONE*, 6(12), e28800.
- Emmons, R. (2000).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xline, J. J., & Geyer, A. L. (2004). Perceptions of Humility: a Preliminary Study. *Self and Identity*, 3, 95-114.
- Exline, J. J., & Zell, A. L. (2008). *Antidotes to envy: A conceptual framework*.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Flanagan, C. A., Gill, S., & Gallay, L. S. (2005).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trust in adolescence: The importance of heterogeneous encounters. In A. Omoto(Ed.), *Social participation in processes of community change and social action*(pp. 149-166). Mahwah, New Jersey: Erlbaum.
- Frankl, V.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 Hay, D. F. (1994). Pr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29-71.
-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ermans, H. J. (1998). Meaning as an organized process of valuation: A self-confrontational approach, In P. T.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317-334).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ilbig, B. E., & Zettler, I. (2009). Pillars of

- cooperation: Honesty-humility, social value orientations, and economic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516-519.
- Janoff-Bulman, R., & McPherson, F. C. (1997). The impact of trauma on meaningful: From meaningless world to meaningful life. In M. J. power & C. R. Brewin(Eds.), *The Transformation of meaning in psychological therapie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pp. 91-106).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32, pp. 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L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ep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ewman, S. Vasudev, J., & Onawola, R. (1985). Older volunteers's perceptions of impacts of volunteering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 123-127.
- Omoto, A. M., & Snyder, M. (1995). Sustained helping without obligation: Motivation, longevity of service, and perceived attitude change among AIDS volunt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71-686.
- Owens, T. R. (1999).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wellness inventory.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3, 180-182.
- Peters, A., Rowatt, W. C., & Johnson, M. K. (2011). Associations between dispositional humility and social relationship. *Psychology*, 2, 155-161.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g: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hodewalt, F., & Mort, C. C. (1998).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oss, M., & Sicoly, F. (1979).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22-336.
- Ryff, C. D., 7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andage S. J., Worthingtong, E. L., Hight, T. L., Berry, J. W. (2000). Seeking forgiveness: Theoretical context and an initial empirical stud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21-35.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김인자 역. 「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2006)
- Staub, E. (1978).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New York: Academic Press.



- Tangney, J. P. (2000). Humi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empirical findings and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70-82.
- Tangney, J. P. (2002). Humilit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411-4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nger, L. S., & Thumhuri, L. K. (1997). Trait empathy and continuous helping. The case of volunteerism.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 785-800.
- Watson, P. J., Morris, R. J., Miller, L. (1997). Narcissism and the self as continuum: Correlations with assertiveness and hypercompetitiveness.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7*, 249-259.
- Weiss, H. M., & Knight, P. A. (1980). The utility of humility: Self-esteem, information, search and problem-solving efficienc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25*, 216-223.
- Weiss, R. F., Boyer, J. L., Lombardo, J. P., & Strich, M. H. (1973). Altruistic drive and altruistic reinfor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90-400.
- Wheeler, J. A., Gorey, K. M., & Greenblatt, B.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 69-79.
- Wolfe, R. N., & Johnson, S. D. (1995). Personality as a predictor of college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177-185.

논문 투고일 : 2017. 09. 28

1 차 심사일 : 2017. 09. 29

게재 확정일 : 2017. 11. 28

**The influences of character strength on  
full life of adults in Korea:  
Mediating effects of volunteering**

**Eunho Kim<sup>1)</sup>**

**Junseong Park<sup>2)</sup>**

**Taeyun Jung<sup>1)</sup>**

<sup>1)</sup>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generation gap of positive effects on character strength for full life of adults in Korea and to verify mediating effect of volunteering from character strength in this roots. To test this effects, there was an investigated differences of perception on character strength, volunteering and full life from 1,405 Koreans. Then had set up the influence model of character strength on full life between generation, and verified the model through structural equation. Therethrough first,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t between generations except the variables of trust, full life and meaning of life. Second, full life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character strength in early adulthood. Third, volunteering had fully mediated from character strength to full life in post middle aged adults, but had partially mediated in early adulthood. This will help acquaint us with importance of accompany with volunteering at character strength than character strength directly connects to full life. Based on these results, we are treated on importance of mediating volunteering effects and influences of character strengths on full life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positive attitude, volunteering, full life, early adulthood, post middle aged adults.